

이클립스 2022-06 버전에서  
한글 깨짐 해결

## A. 이클립스 2022-06 버전에서 한글 깨짐 해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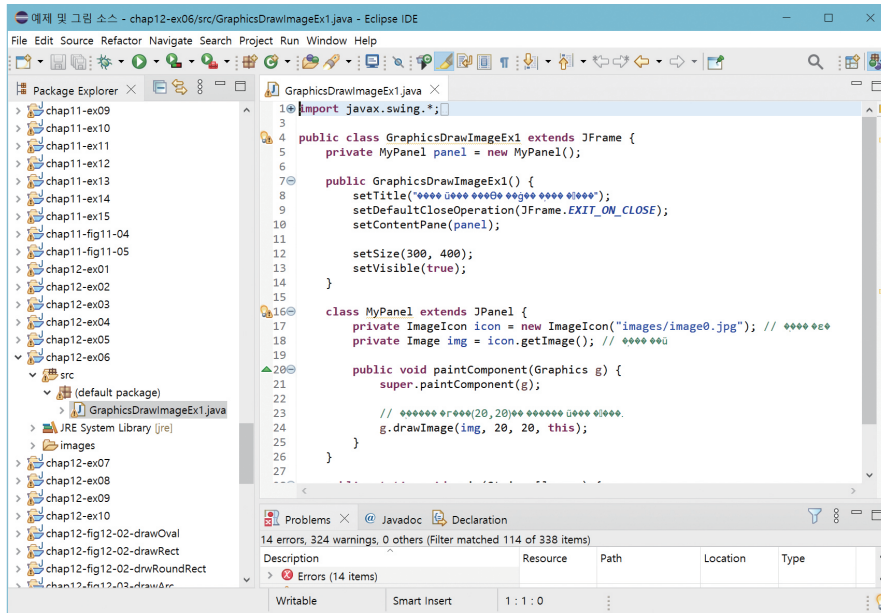
### 문자셋

모든 편집기는 사용자가 영문이든 한글이든 문자를 입력하면, 각 문자들을 이진수로 바꾸어 저장하고 인식하는데 이 이진수를 문자 코드라고 부른다. 한글을 비롯하여 모든 문자들은, MS949, utf-8 등 다양한 문자셋에 의해 정의된다. Windows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MS949 문자셋을 이용하며 리눅스는 utf-8 문자셋을 이용한다. 각 문자셋은 문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이진수(코드)를 사용하므로, MS949 문자셋을 사용하여 저장된 파일이 utf-8 문자셋을 다루는 편집기에서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.

특히, 영어와 달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과, 완성된 각 글자마다 문자 코드를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글 문장이 완전히 다른 코드로 인코딩되므로 더욱 문자셋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
###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명품 자바 예제 소스의 한글 깨짐

홈페이지에는 2개의 버전으로 자료 압축 파일이 제공되는데, MS949 버전은 2021-12월 이클립스를 위한 것이고, utf-8 버전은 2022-06월 이클립스를 위한 것이다. 2021-06월 이하의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은 MS949 버전의 자료를 다운받고, 2022-06월 버전의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독자들은 utf-8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. 이것은 2021-06월 이하의 이클립스는 사용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저장할 때 MS949 문자셋으로 저장하고, 2022-06월 이클립스는 utf-8 문자셋으로 저장하도록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편리를 위해 2개의 버전으로 자료를 제공한다. 그런데 만일 2022-06월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는 독자가 MS949 버전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면, 문자셋이 일치하지 않아서 [\[그림 1\]](#)과 같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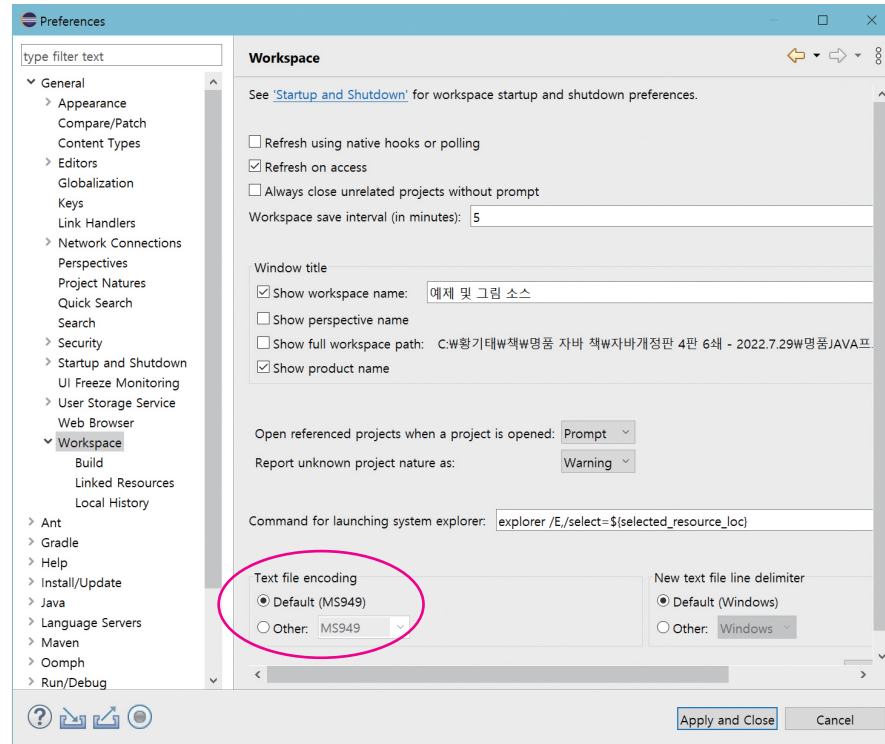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2022-06 버전 이클립스에서 명품 자바의 예제들의 한글이 깨지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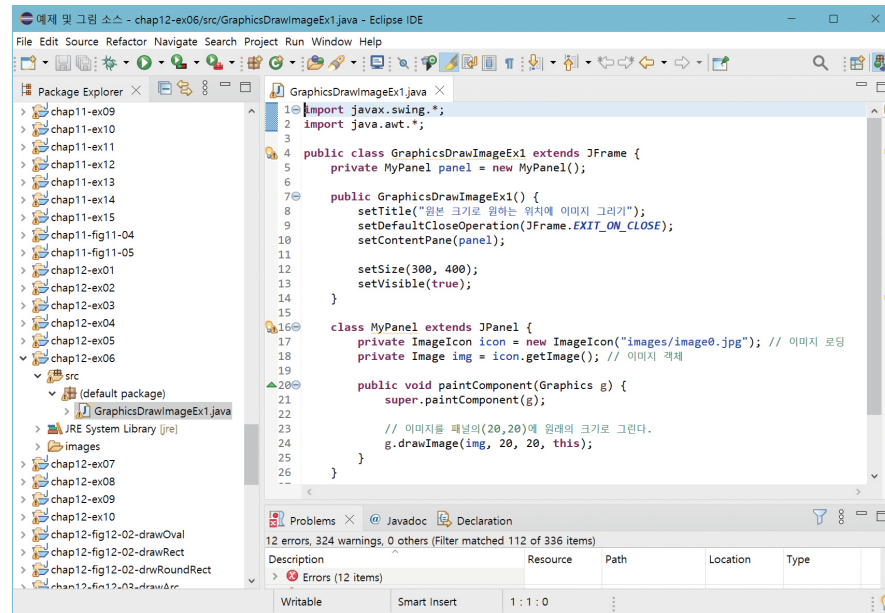
## 한글 깨짐 해결

한글 깨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하다. 이클립스의 디폴트 문자셋을 바꾸어주면 된다.

이클립스는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문자셋을 지정하는 메뉴를 두고 있다. Window → Preferences 메뉴를 선택하면 [그림 2]와 같은 창이 출력되며, 여기서 다시 General → Workspace 메뉴를 선택하고, 하단부의 'Text file encoding'에서 'Default(MS949)'를 선택하고 Apply and Close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, [그림 3]과 같이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.



[그림 2] General → Workspace 메뉴에서 Text file encoding을 Default(MS949)로 선택



[그림 3] General → Workspace 메뉴에서 Text file encoding을 Default(MS949)로 선택

독자들은 어떤 이클립스 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디폴트 문자셋을 변경하여 한글 깨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현 시점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, 2022-12월 이클립스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, **[그림 2]**의 창을 출력하여 디폴트 문자셋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, 그에 따라 독자 스스로 문자셋을 설정하면 한글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.

### 바람직한 문자셋

현재 리눅스의 표준 문자셋이 `utf-8`이며, HTML이나 CSS 등 웹 문서의 표준 문자셋 또한 `utf-8`이다. 자바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문서를 편집할 때에도,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호환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`utf-8`을 사용하기를 권한다.